

충무공이 남긴 우리 시대의 진정한 나침반 ‘난중일기’

김소희

그동안 나는 드라마, 영화, 소설을 통해서 충무공을 다양하게 만나왔다. 그리고 내 기억속의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것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소설이 아닌, 실제 난중일기의 번역본을 읽으면서 장군과 깊은 고뇌에 함께 빠져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장군의 단호함에 놀라기도 하면서 내가 익히 알고 있던 장군의 모습 외에 새로운 모습들을 만나 보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군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 또, 여러 사람을 통솔해 나가는 리더로서의 모습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자로서의 모습이였다.

장군 역시 우리들처럼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였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고 아꼈지만, 나라를 지켜야 하는 큰 임무 앞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장군의 고뇌와 안타까움은 어머니의 생신이나 집안의 제삿날에도 훈련에 참석하며 마음을 쓰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 아들이 다녀가거나, 또 전장에서 아들을 잃었을 때, 또 어머니가 돌아가심을 알았을 때, 걱정하고 슬퍼하는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아무리 장군이라 해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 가슴에 맺힌 말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도, 일기에는 아주 길고 긴 하소연이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짧게 그 심정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장군의 답답하고 허망한 마음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으로 다가와 더욱 더 가슴을 아프게 한다.

또, 장군은 가족만을 사랑하기보다는 한 나라의 장수로서 자신이 지켜야 하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꼈다. 전쟁 중 피난을 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따뜻한 시선과, 또 어려울 땐 고을 창고를 열어 그 곡식으로 백성을 먹여 살리는 모습은 그런 장군의 따뜻한 백성 사랑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 자신이 부리던 사람이 죽었을 때 깊이 안타까워하고, 백성에게 패를 끼친 역졸들을 다스리는 모습에서도 아무리 낮은 계층의 백성이라도 모두 안고 보살피려하는 장군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나타난다.

하지만 장군도 역시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전쟁을 거치는 동안 아주 다양한 고뇌에 휩싸여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여러 장수들의 원통함을 생각하고, 전장에서의 답답함과 괴로움이 한 번씩 찾아와 일기 속엔 그런 장군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잘 묻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부분들이 장군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다면,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전술에 대해 깊이 고뇌하고, 또 군사들을 다루는 모습에서는 리더로서의 장군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장군의 뛰어난 지략에 감탄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장군의 가장 뛰어난 리더로서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또 잘한 것이 있을 때는 거침없이 칭찬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특히 전장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장수에 대해 엄중하게 벌을 주고, 훈련을 잘 해내는 군사들에게는 칭찬을 해주는 모습에서 그러한 태도는 잘 드러난다. 또, 꼼꼼하고 술선수범하는 리더로서의 모습도 잘 나타난다. 아주 작은 부분 인데도 기동하나, 쇠사슬 하나 매는 것까지 신경 쓰면서, 부족한 부분을 직접 나가보고 살펴며, 함께 지켜보는 리더의 태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렇게 장군은 간간한 모습만을 보여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군사들의 술자리도 마련해 주고, 군사들이 지내는 데 불편이 없는지 살펴보는 모습에서 군사들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리더의 모습도 보여준다.

장군은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장에 관련한 모든 부분을 신경 쓰는 진정한 리더의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모습들과 함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어하는 조국에 대한 걱정에서 장군의 애국심이 잘 드러난다.

특히 나라의 운명이 아침이슬과 같은 상황에서 나라의 인재 없음을 한탄하는 모습과, 전장에 나아가서 왜군을 보고 원통해 하는 모습, 그리고 훈련과 전쟁을 치를 때마다 나라 걱정에 잠을 설치는 모습에서 더욱 장군의 애국심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장군을 난중일기를 통해 만나보면서 나는 웬지 모를 든든함과 뿌듯함이 크게 느껴졌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장수는 아니지만 역사속의 그 순간, 만약에 장군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고, 또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인간적인 장군의 모습에 아주 좋으신 어른을 가까이서 만난 느낌도 들었다. 묵묵하지만 언제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생각할 줄 알고, 또 자신의 어려움보다 자신보다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장군의 모습에서 정말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충무공을 통해 나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사실 우리는 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때를 정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국가대항 경기를 본다든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도달했을 때처럼 한 순간에 애국심을 가졌다가 금방 또 그 마음이 식어, 이 나라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따지면서 애국심을 가지려 한다. 한 나라는 한명 한명의 국민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며, 또 우리가 곧 나라가 되는 것인데도 말이다.

또한 우리는 상하 위계가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처럼 너와 나를 심하게 구분 짓고, 차별하고, 혹은 너무나 깊은 이기주의에 빠져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잃고 가족조차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충무공과 같이 높고 훌륭한 인물조차

도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걱정하며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이제 새롭게 다가올 시대는 또 지금과 또 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어쩌면 새로움으로 가기 위해 지금보다 더 엄청난 시련과 변화들을 겪게 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난중일기 속에서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충무공의 따뜻했던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나와 너를 구분 짓기 보다는 우리로 하나 되는 사회를 이루어 내고, 또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혹시나 누군가가 이러한 시대적인 격랑 속에서 시련을 겪거나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나는 서슴없이 난중일기를 통해, 다시 한 번 따뜻한 에너지를 보충 할 수 있도록 권해보고 싶다.